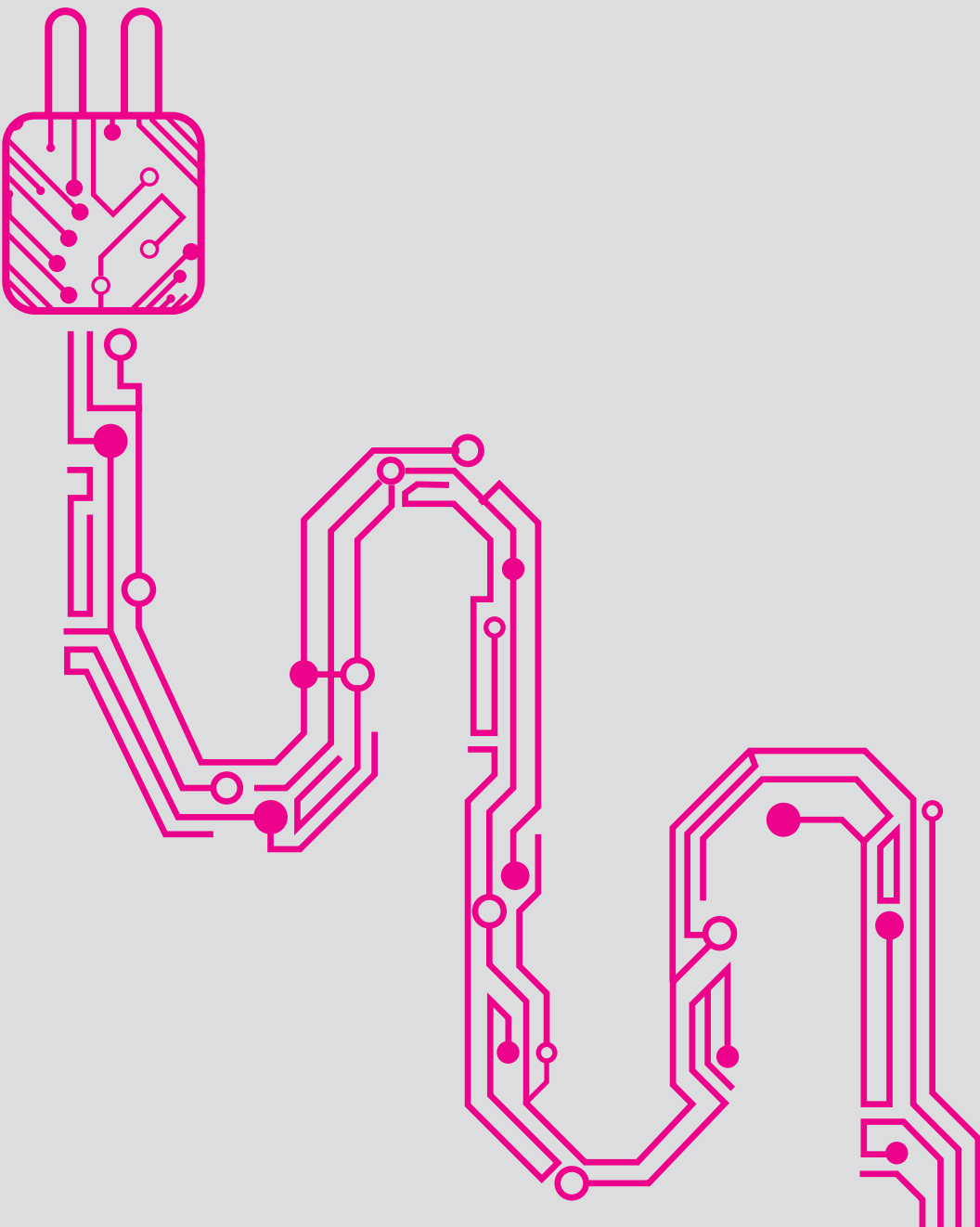


---

# E SOLU TION

빈칸추론 & 간접쓰기를  
평가원의 CODE로 해결하는  
영어영역 고난도 유형 대비서

---



#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평가원의 'CODE'란?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34번[빈칸추론] 정답률: 27%	39번[문장삽입] 정답률: 56%	35번[빈칸추론] 정답률: 19%
38번[문장삽입] 정답률: 29%	28번[어법] 정답률: 57%	34번[빈칸추론] 정답률: 30%
33번[빈칸추론] 정답률: 48%	33번[빈칸추론] 정답률: 57%	36번[빈칸추론] 정답률: 37%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	2012 대학수학능력시험	2011 대학수학능력시험
26번[빈칸추론] 정답률: 32%	30번[빈칸추론] 정답률: 41%	26번[빈칸추론] 정답률: 14%
20번[어법] 정답률: 37%	21번[어법] 정답률: 43%	28번[빈칸추론] 정답률: 26%
21번[어법성 판단] 정답률: 37%	50번[장문-빈칸추론] 정답률: 61%	44번[문장삽입] 정답률: 32%

[M사 예상정답률 참고]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결국 최저정답률을 보여주는 유형은 '빈칸추론'유형을 포함한 고난도 유형입니다. 16수능은 1등급컷이 100이었던 6월, 9월에 비해 압도적으로 어렵게 나왔고 고난도 유형을 대비를 못한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한 시험이었습니다.

물수능일 경우, 최고난도 문항은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항이 되고, 불수능일 경우에는, 최고난이도를 맞춰야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 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쉽게 출제된 15수능을 제외하고는, 네 시험 모두 '70% 반영정책'이 개입된 시험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이런 유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 20%의 수험생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 혹은 여러분들만 봐도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평가원의 CODE란 기출 문제 등에서 배울 수 있는 '고난도 문제의 열쇠'입니다. 가령 수학 문제에 비유하자면 무한등비급수 유형은 '기출 문제 소재'에 지나지 않지만, 무한 등비급수 유형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인 '초항과 공비를 구하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CODE에 대응됩니다. 평가원의 공식 학습방법에 기초하여, 단순히 양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책 등을 통해서 그런 열쇠를 발견하는 것, 동시에 그런 열쇠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이 책의 집필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풀면서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평가원의 CODE'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 시험이 얼마나 어렵게 나오든 간에 원점수 100점을 쟁취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등급에 따른 이 책의 효과적인 Curriculum

## 3등급~2등급 하위

무작정 어려운 문제에 달려드는 것보다는, 쉬운 단원부터 기본적인 개념을 차근차근 쌓으면서 해석실력 및 어휘력을 높이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함.

**CODE 1-1 → CODE 1-3 → CODE 2-1 → CODE 4&5**

(CODE 1-2와 CODE 3-1, 3-2는 본인 선택으로 보류 가능 혹은 위 CODE를 완벽히 소화한 후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

## 2등급 상위~1등급 하위

쉬운 문제만 풀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책의 단원을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함

**CODE 1-1 → CODE 1-2 → CODE 1-3 → CODE 2-1 → CODE 2-2 → CODE 3-1 → CODE 3-2  
→ CODE 4&5**

(CODE 4&5은 별개이므로 CODE 3 들어가기 전, 혹은 빈칸 CODE와는 별개로 공부해도 됨.)

## 1등급 상위

만점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층. 개념 위주 학습 후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 간접쓰기 등은 본인의 선택

**CODE 1-2 → CODE 2-2 → CODE 3-1 → CODE 3-2**

(나머지 CODE들은 책 개념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전 단원에서 순차적인 정독을 요구할 경우 개념 부분 위주로 독해해볼 것을 추천함.)

# 이 책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 1

### 개념설명 부분을 정확히 읽고, 그 부분에서 말하는 방법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념 설명’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치기용 문제로 이 책을 풀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익히기는 힘들게 됩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설명 부분을 읽고, 그 방식대로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2

### 이미 풀어보았던 기출 문제라도 ‘근거를 찾아서’ 다시 풀어보자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단순히 정답을 맞추거나 지문 내용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출제된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기출 문제들의 근거 및 정답의 CODE를 찾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출을 풀고 자신이 해설지에 설명된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했거나 근거를 정확히 잡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부동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조금 귀찮을지 몰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3

### 연습 문제를 풀고 나서는 꼭 해설지를 통해 ‘CODE’를 파악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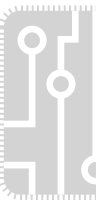
연습 문제는 양질의 비연계 문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개념 설명 및 기출 문제에서 배웠던 CODE를 연습하고 이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에서 정답의 근거 등을 헛갈릴 때 혹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서 맞췄더라도 코드 적용을 위해 꼭 해설지를 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4

###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틀렸다고 바로 해설지를 보지 말자

이 책에서는 현 수능 이상 수준의 난이도를 넘는 문제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해설지를 넘겨 답만 확인하고 해설을 읽는 공부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해설지를 펼쳐 정답을 보기 전에 자신이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어떠한 사고를 통해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한 후 해설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이 책을 펴내며

E-solution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6수능은 물수능으로 예고되어왔지만, 정작 수험생에게 불수능을 출제한 유례없는 수능입니다. 이 책을 내야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했지만, 누군가는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이 책을 다시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개정할 여지를 만들어 준 많은 수험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책을 처음 낼 때만 해도, 시중에 비연계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빈칸추론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많은 비연계 공략도서가 시중에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시중 문제집을 예로 들면, 빈칸추론 유형의 경우는 빈칸이 앞, 중간, 뒤에 있는 경우들로 나누어 해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각 유형별로 다른 경우에도 각 문제마다 풀이 방법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강의도 8할은 유형을 나누어 놓은 다음, 그냥 읽고 푸는 경우가 대다수거나 실전적으로 자신들의 유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재진술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심지어는 자신의 스킬을 끼워맞추거나 어거지로 푸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복수 정답을 의심케 하는 선지나 해설 방법을 차용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은 쓰지 않고, 귀납적으로 CODE를 찾아낸 다음 이것을 유형분리를 해 '모든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 책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실제로 연습하시면 제가 말해놓은 방법론, 속칭 문제 풀이 전략이 잘 들어맞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책을 풀 때 **개념설명 부분을 대충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문제 풀기 이전에 꼭 정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맞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설 부분을 꼭 보고, 방법론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수능 영어영역실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보면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는 책이겠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도록 도와주신 오르비 북스(move) 관계자 여러분들, 응원해준 친구들, 관심 가져주신 오르비 회원분들 및 전국 수험생 여러분, 끝으로 항상 못난 아들 믿어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자 김현석 올림



## ○ 저자 | 김현석

- 2012 The Exclusive Frontier 집필
- 2012, 2015 적중! 빈칸변형 집필
- 2013~ E-solution / S.D 모의평가 집필
- 현재 Orbis Optimus에서 '승동'이라는 닉네임으로 영어영역 멘토링 등 각종 활동중.

## ○ 검토자 목록

검토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근우 KAIST 물리학과

김종현



# 이 책의 구성

## CODE 1

### 빈칸추론 대용어

1-1 대용어	11
기출 문제 적용	27
연습 문제 적용	34
1-2 Multi-blank 공략	46
기출 문제 적용	48
연습 문제 적용	54
1-3 장문-빈칸추론 공략	61
기출 문제 적용	63
연습 문제 적용	66

## CODE 2

### 빈칸추론 핵심 문장

2-1 핵심 문장	71
기출 문제 적용	79
연습 문제 적용	96
2-2 매력적 오답의 CODE-上	113
기출 문제 적용	123
연습 문제 적용	127

## CODE 3

### 빈칸추론 고난도 독해의 열쇠

3-1 매력적 오답의 CODE-下	141
기출 문제 적용	150
연습 문제 적용	156
3-2 추상적 글 독해의 태도	172
기출 문제 적용	185
연습 문제 적용	196





## CODE 4

### 간접쓰기 Sentence

4-1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문제의 근거

221

기출 문제 적용

226

연습 문제 적용

247



## CODE 5

### 간접쓰기 글의 순서

5-1 글의 순서 유형 문제의 근거

265

기출 문제 적용

271

연습 문제 적용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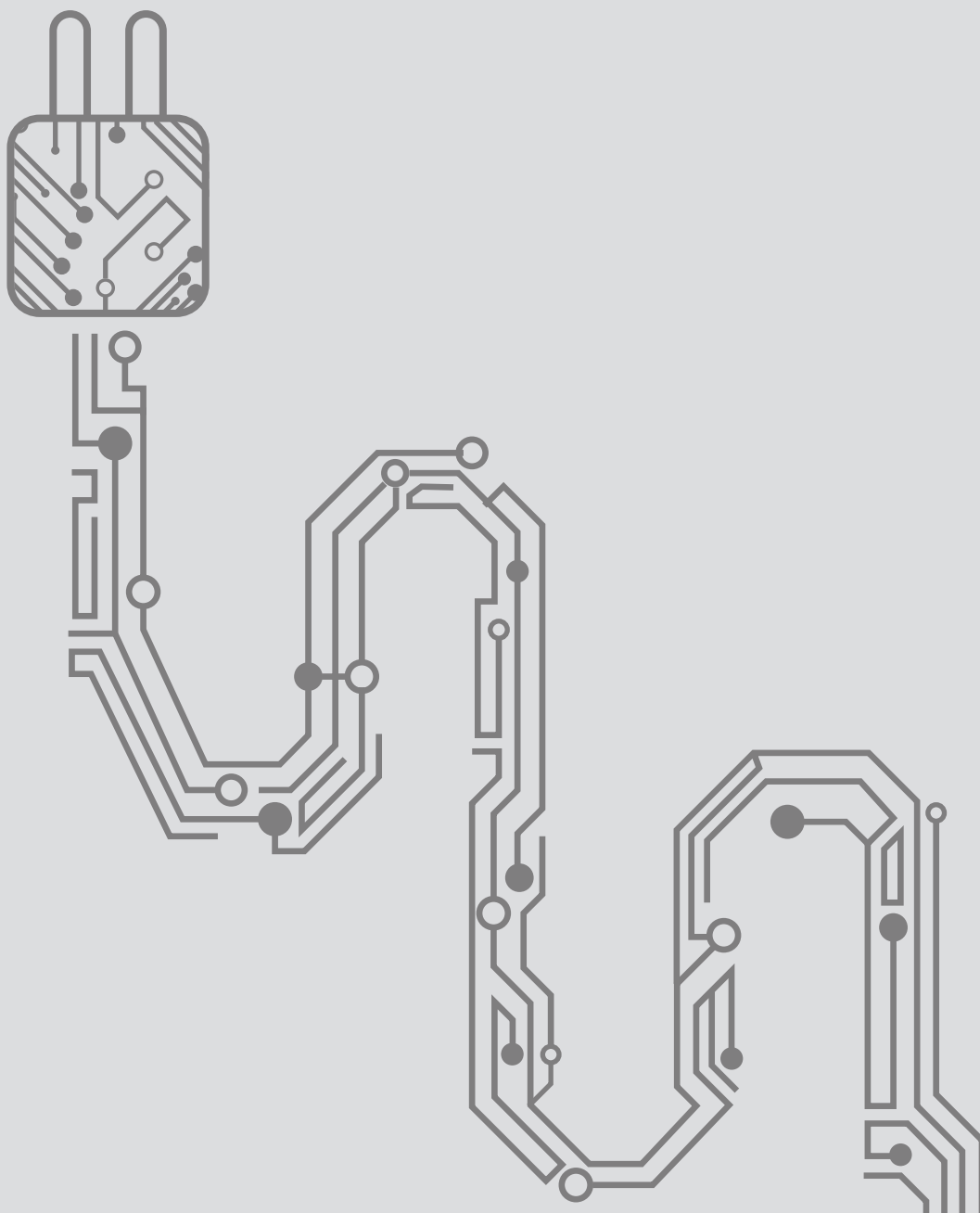
## 정답 및 해설



# CODE 1

빈칸추론

대용어



## 개념 설명

우선 이 책에서 처음 설명할 개념은 ‘대용어’입니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대용어뿐만 아니라 문맥에 의한 단어 의미 파악 등에 대해 훈련 할 것입니다.

### 1. 대용어

다음 한글로 된 예시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시 문제**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10대들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20대들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서 소개팅에 자주 나간다. 우리는 10대와 20대 모두 \_\_\_\_\_을(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연인

② 돈

③ 분노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지문에서는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어한다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고, 이것과 같은 말인 1번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2번 선택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돈을 좋아 하는건 맞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할 때 같은 말을 계속 할 때도 있지만, 말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다른 단어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실제 수능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 책들을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 내용을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책에 국한하지 않고 영어로 된 지문들에 대용어란 개념을 독해의 근거로 적용시킬 수 있는 이유도 이것 중 하나입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수능 영어를 공부할 때에는, 모든 영어 기출 문제는 ‘정답임을 납득시킬만한 근거’가 지문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평가원에서는 학습 방법 지침서에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함으로써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구, 연결어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한글 예시의 경우에도 2번 선택지는 얼추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결국 지문 내에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선택지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설명할 대용어란, 지문 내에서 정답이 되는 가시적 근거가 되는 **Keyword**인 단어를 말합니다. 우선 대용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대용어(anaphor)

[명] 다른 표현, 대개는 그 글에서 이전에 나왔던 표현에서 그 의미를 빌려 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따라서 지문 내에 **문맥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단어 자체는 다른 것**을 우리는 수능 영어영역을 풀 때 대용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대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운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가장 중요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어 예문을 통해 대용어의 예를 봅시다.

**1** Our happiness is determined by the way we harness and manipulate our liberty. The choices we make out of our free will determine not only how happy we shall be but also how continuously happy we shall be.

**2** The language in careful writing should be exact. If you depend on such general terminology, not only do you not express yourself clearly, but you actually injure your mental processes. To a large extent the ability to think in terms of accurate distinctions depends on possessing in your vocabulary the words which express such distinctions.

1번 문장에서 **harness and manipulate**가 **out of our free will**의 **out of**와 문맥상 동일한 의미로 쓰였고, **liberty**도 문장에서 **free will**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2번 문장의 경우 **exact**가 **clearly, accurate distinctions**으로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을 **such distinctions**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같은 의미라도 다르게 바뀌며, 수능의 경우 정답의 근거가 되는 핵심 내용이 이렇게 바뀌며 지문에 나옵니다.

### Question and Answer

● **Question 1 빈칸에 무조건 대용어만 들어가나요?**

→ **Answer 1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정의내리는 ‘대용어’는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를 취하는 것도 맞지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문맥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여러분들이 대용어를 잡을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대용어를 잡아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원도 주제와 관련있게 출제하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대용어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용어를 훈련함으로써 **실전에서 두 개의 선지 중 하나가 헛갈릴 때 고민하지 않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문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어도 헛갈리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한글로 설명한 예시 중에 선택지 1번과 2번이 헛갈렸다면 그런 경우가 실전에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출 문제에는 가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것은 실전에서 정답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용어를 훈련함으로써 **어려운 문제의 근거를 보다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쉬운 문제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통해 종래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에서 사용하였던 개념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은 영어 영역에서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기반이 튼튼해 야 추후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고난이도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Question and Answer

● **Question 2 그렇다면 저자님은 독해 능력은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 **Answer 2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잘못 이해하면 ‘근거를 찾는 편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거를 찾는 과정은 어느 정도 독해(해석)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다음 예시 문장들을 질문에 맞게 한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들을 해석해 보면서 위에서 설명했던 대용어를 잡아보시기 바라고, 그 후 해설을 보면서 질문에 맞게 대용어를 잡아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용어 찾기 연습 - 11문제

- 1** It either becomes extinct or evolves into a new, stronger code. In turn, this new code survives only until the codebreakers identify its weakness, and so on. [07 6평 45번]  
⇒ Question: new, stronger code의 대용어는?
- 2** Often the best form of communication with friend is, surprisingly, silence. True friendship occurs when 'information' is conveyed by absence of words. [08 9평 24번]  
⇒ Question: silence의 대용어는?
- 3** In recent years, knitting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with the younger generation. Why are so many young people taking up knitting as a hobby? [09 6평 33번]  
⇒ Question: younger generation의 대용어는?
- 4** Older workers often have skills that are quite specific to the industry or firm in which they are currently employed. When they do leave work, however, finding a position that matches well with their precise skills is often difficult and time-consuming. [09 9평 39번]  
⇒ Question: specific의 대용어는?
- 5** Ralph was asked to work on the citizen's general dissatisfaction with the effectiveness of city government. After spending some time with people in the city, he found one of the problems was the performance of the city planning department. [09 9평 40번]  
⇒ Question: citizen의 대용어는?

- 6** Weidman's eureka moment came when he found a long-overlooked memo written by Eiffel in 1885. The document gave Weidman the insights he needed to work out the mathematical formula that describes the tower. [06 6평 42번]  
⇒ Question: long-overlooked memo의 대응어는?
- 7** They could exchange remaining stocks with neighbors or exchange them in the local market. Due to this trade, the plant variety became widespread in a region. [10 6평 40번]  
⇒ Question: 앞 문장의 exchange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대응어는?
- 8** However, the same technologies that help separate us from the crowds also make it possible to monitor and record our behaviors. [10 9평 28번]  
⇒ Question: separate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대응어는?
- 9** As much as any other kind of thinking, reflection requires solitude. Distraction and reflection simply do not mix. [11 6평 40번]  
⇒ Question: solitude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대응어는?
- 10** But we must acknowledge that thinking well is a time-consuming process. We can't expect instant results. We have to slow down a bit and take the time to contemplate and meditate. [12 9평 22번]  
⇒ Question: a time-consuming process의 대응어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대응어는?
- 11** Of course, the muted expressive display might also be strategic and intentional. Thus, the nonverbal message is deliberate, but designed to let the partner know one's candid reaction indirectly. [15 6평 33번]  
⇒ Question: strategic and intentional의 대응어는?

## 대용어 찾기 연습 – 해설

1. 해석: 그것은 멸종했거나 혹은 새롭고 강한 코드로 진화했을 것이다. 결국에 이러한 새로운 코드는 암호 해독자가 그것의 약점을 발견 할 때까지 생존하며 이는 반복된다.

답: (this) new code

2. 해석: 놀랍게도 친구와 대화의 최상의 형태는 침묵이다. 진정한 우정은 ‘정보’가 단어 없이 전달될 때 일어난다.

답: absence of words

3. 해석: 근래에 뜨개질은 젊은 세대들에게 점점 인기 있게 되었다. 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뜨개질을 취미로 배우는가?

답: young people

4. 해석: 나이 많은 직장인들은 주로 그들이 속해 있는 사업이나 회사에 특화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직장을 떠날 때 그들의 정밀한 기술에 맞는 직장을 찾는 일은 주로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답: precise (skill)

5. 해석: Ralph는 시청의 효력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불만족에 대해 알아내도록 요청 받았다. 도시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도시 계획 부서의 일하는 방식(이행)이 문제 중 하나인 점을 발견했다.

답: people in the city

6. 해석: Weidman의 유레카 모멘트는 1885년 Eiffel에 의해 작성된 오랜 시간동안 간과된 메모를 발견했을 때 왔다. 문서는 Weidman에게 탐을 묘사하는 수학적 방정식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주었다.

답: document

7. 해석: 그들은 남아있는 재고를 이웃들과 교환할 수 있거나 혹은 지역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래 때문에 지역 내에서 농작물의 다양성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답: (this) trade

8. 해석: 그러나, 군중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놓았던 동일한 기술이 우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토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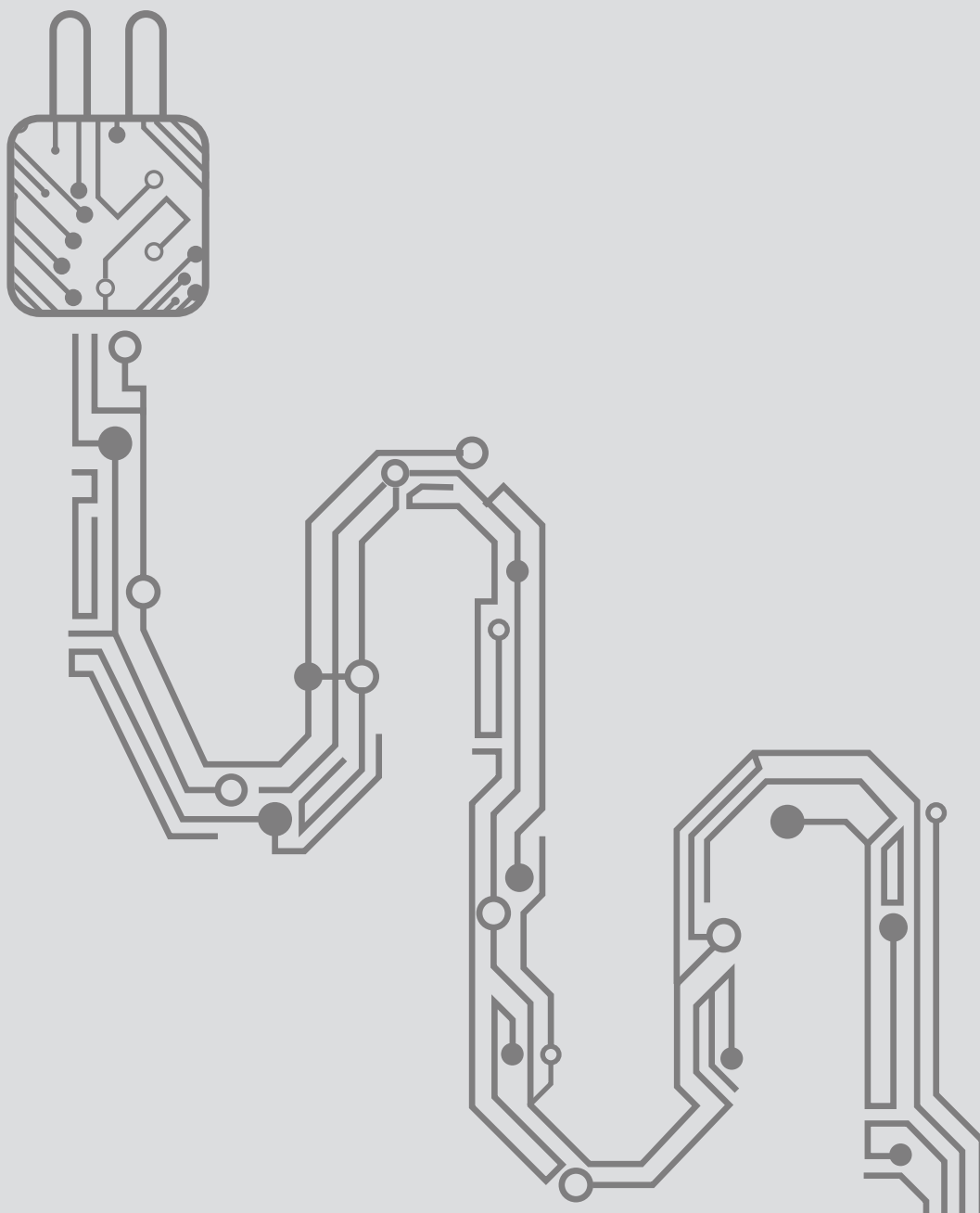
답: monitor and record



# CODE 4

간접쓰기

Sentences



## 개념 설명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문장 삽입 혹은 무관한 문장 찾기와 같은 문장 유형 문제의 근거입니다.

평가원에서는 간접쓰기 유형을 풀 때, 학습지침서에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 고리뿐 아니라 내용상의 연결을 고려하여 문제를 풀어 보는 연습을 한다. 글의 중심 내용과 논리적 전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을 파악해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보이니까"라고 말하면서 풀 수도 있지만, 답이 어느 것인지 헷갈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평가원이 말한 명시적 근거, 그리고 제가 말할 '가시적 연결고리'를 찾아보며 답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근거를 찾으면서 푸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정답을 확신하면서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틀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꼭 푸시기 바랍니다.

16년도부터의 흐름은 글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가시적인 연결고리만으로 문제를 푸려고 하니, 글의 순서 경우에는 대명사 They를 두 개 내어 뒤 문장을 읽지 않고는 풀 수 없게 내버렸습니다. 16년도 9월 38번 문항도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푸는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글의 흐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가시적 근거(=명시적 단서)를 사용하라고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유형을 풀 때 아래와 같은 근거를 찾으면서, 문제의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1: 문장 삽입 유형

빈칸 안에 넣어야 하는 문장과 관련하여

- ⇒ 지문에 있는 다른 문장에서 대명사 혹은 지칭사로 받아주는 부분이 있는가?
- ⇒ 논리적 전개나 실험 과정을 바탕으로, 접속사 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 ⇒ 결과나 원인과 같이 '근거가 되는' 내용이 해당 부분 앞뒤에 있는가?

## 2: 무관한 문장 유형

무관한 문장으로 추정되는 문장이

⇒지문의 첫 문장이나 전체 주제에 어긋나는가? 가령, 주제와 배치(背馳)되는 내용인가?

⇒지문의 논리적 흐름 또는 실험 결과와 반대되는 내용인가?

⇒앞뒤에 있는 내용과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 또는 무관한 문장으로 추정되는 문장의 다음 문장에 있는 대명사가 앞 문장(무관한 문장으로 추정되는 문장)의 내용을 받아주지 못하는가?

각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수능이 시행되었을 때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는 영어영역 B형에서 출제되지 않았지만, 통합형 영어 시험이 실시된 이후에는 간접 쓰기 유형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수능 영어 시험에는 간접 쓰기 유형의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는데, 독자 여러분께서는 6월, 9월에 시행되는 평가원 영어 모의평가를 참고하여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공부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시적 근거 중, 논란이 되는 ‘대명사’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가지는 의심은 ‘대명사’가 무조건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해주느냐입니다. 정답은 ‘지금까지 최근 기출문제들은 그래왔다’입니다. 물론 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반례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 수능 B형에 명확히 대명사가 앞에 있는 것을 받지 않을 경우 복수정답이 생길 수 있도록 출제한 문제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대명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지 않고 지문과 동떨어진 내용을 받을 경우 복수 정답이 생길 수 있는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명사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문장이 대명사와 연결되어 대명사가 명확한 의미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습 문제인 문장 삽입 유형 기출 문제를 한 번 풀어보시되, 위에서 말한 가시적 근거를 찾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시 문제**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 해설은 풀고 나서 보세요!

1

08 수능 40번

However, when you try to tickle yourself, you are in complete control of the situation.

Why is it that if you tickle yourself, it doesn't tickle, but if someone else tickles you, you cannot stand it? ( ① ) If someone was tickling you and you managed to remain relaxed, it would not affect you at all. ( ② )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to stay relaxed, because tickling causes tension for most of us, such as feelings of unease. ( ③ ) The tension is due to physical contact, the lack of control, and the fear of whether it will tickle or hurt. ( ④ ) There is no need to get tense and therefore, no reaction. ( ⑤ ) You will notice the same effect if you close your eyes, breathe calmly, and manage to relax the next time someone tickles you.

## 예시 문항 설명

**해설** 넣어야 하는 문장에 'However'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것이 설명하는 내용은 자신이 스스로 긁을 경우 그 상황을 통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 선택지 앞에는 간지러움에 대한 상황이 나오되, 그 뒤에는 자신이 간지러움을 통제하는 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접속사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여 선택지를 고르면 정답은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선택지 앞에서는 통제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삽입해야 하는 문장은 However를 기준으로 통제가 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④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정답인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절대 잘못된 풀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에는 정확히 가지적인 근거로 정답을 정해야 합니다. 평가원이 가지적 근거를 주는 이유는 오답 의의제기가 나지 않기 위함이고, 따라서 평가원의 주는 근거를 통해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and Answer

### ● Question 1 대명사가 절대적인 근거인가요?

→ Answer 1 대명사만 맹신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대 기출들을 풀어보면 대명사가 큰 근거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대명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단순히 대명사만 근거로 잡고, 지문을 해석하지 않고 풀면 틀릴 수 있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평가원이 변별력을 내고자 할 경우 간접쓰기에서 대명사를 이용한 낱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이 논리적 전개를 이해하라고 한 것은, 결국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석능력과 독해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훈련해봤으니, 다음 문제도 한 번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당시 평가원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실제 그 해 간접쓰기가 오답률 2위를 차지하는 것을 암시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시간을 약 2분 정도 재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제**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 해설은 풀고 나서 보세요!

2

16 9평 38번

Still, many believe we will eventually reach a point at which conflict with the finite nature of resources is inevitable.

Can we sustain our standard of living in the same ecological space while consuming the resources of that space? This question is particularly relevant since we are living in an era of skyrocketing fuel costs and humans' ever-growing carbon footprints. ( ① ) Some argue that we are already at a breaking point because we have nearly exhausted the Earth's finite carrying capacity. ( ② ) However, it's possible that innovations and cultural changes can expand Earth's capacity. ( ③ ) We are already seeing this as the world economies are increasingly looking at "green," renewable industries like solar and hydrogen energy. ( ④ ) That means survival could ultimately depend on getting the human population below its carrying capacity. ( ⑤ ) Otherwise, without population control, the demand for resources will eventually exceed an ecosystem's ability to provide it. [3점]

## 예시 문항 설명

**해석** 우리는 똑같은 생태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의 자원을 소비하며 우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유가는 치솟고 인간의 탄소 발자국은 끊임없이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적절하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지구의 유한한 환경 수용력을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한계점에 이르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혁신과 문화적인 변화가 지구의 수용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태양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같은 ‘녹색’의 재생 가능한 산업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이것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가 결국 자원의 유한한 특성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것은 생존이 궁극적으로 인구를 환경 수용력 아래로 낮추는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통제 없이 자원에 대한 수요가 결국 그것을 제공할 생태계의 능력을 초과할 것이다.

**해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문제입니다. 우선 Still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라는 의미로 봐야 하며, 문맥에 따라 순접 혹은 역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Still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유한한 자원에 대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선택지 앞에는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태양, 수소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들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4번 선택지 뒤 문장에서는 생존은 수용량(자원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이하로 인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선택지 전 후로 문장들이 모순됨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선택지 앞과 뒤 내용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지구의 수용량을 늘리는데, 4번 선택지 뒤 내용을 통해 지구의 수용량 아래로 인구가 있어야 생존이 궁극적으로 의존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인구를 조절하라는 말은 앞에서 그릇의 크기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뒤에서는 물이 그릇보다 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말이 됩니다. 주어진 문장이 4번에 들어간다면 4번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4번 선택지 뒤 문장과 지시사 That으로 연결되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 믿는다 → 이것은 사람들을 수용량 아래로 유지시켜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제한된 자원보다 사람 수가 적어야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로 논리적으로도 가시적 근거를 통해 연결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4번에 문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글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여 4번 뒤 문장 That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받지 않고 문단 내 어딘가 있는 문장을 받아준다고 생각한다면 문제 자체를 풀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평가원에서는 지시사를 의미 없는 도구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 정답 ④

문제집에서는 기출 문제와, 연습문제로는 14수능대비 교육청 문제까지와 그 외 문제들을 수록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15수능대비 교육청 문제들도 간접쓰기를 꼭 풀어보시길 바라며,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들을 풀 때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가시적 연결고리와 논리적 전개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적 근거와 논리적 전개를 파악하여 글의 흐름을 잡아내라!**

## 27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Nevertheless, something has been achieved, and much ancient error has been discarded.;  
much of this ancient error was associated with theology, either as cause of as effect.

Of all the more important departments of scientific knowledge, the least advanced is psychology. According to its derivation, “psychology” should mean “the theory of the soul,” but the soul can hardly be regarded as a scientific concept. ( ① ) No psychologist would say that the subject-matter of his study is the soul, but when asked to say what it is he would not find it easy to give an answer with words. ( ② ) Some would say that psychology is concerned with mental phenomena, but they would be puzzled if they were required to state in what respect, if any, “mental” phenomena differ from those which provide the data of physics. ( ③ ) Fundamental psychological questions quickly take us into regions of philosophical uncertainty and it is more difficult than in other sciences to avoid fundamental questions, because of the paucity of exact experimental knowledge. ( ④ ) But the connection was not with particular texts or religious errors as to matters of fact. ( ⑤ ) It was rather with physical doctrines which, for one reason or another, had come to be thought essential to the body of orthodox dogma.

\*paucity:결핍 \*\*theology:신학 \*\*orthodox: 정통적

## 28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Questions about our real motives and real beliefs appear very difficult to deal with because we would like generalizations and laws of behavior, yet only find variation between individuals, change within individuals, and sometimes nice and sometimes nasty surprises. ① There are also persistent indeterminacies of interpretation. ② Sometimes we think we know, but often we cannot tell, and perhaps the subject cannot tell either, since our own capacity to interpret our own doings is far from perfect. ③ Sometimes, perhaps, there is no fact of the matter. ④ Matter of world is identified in objective reality, where rational human beings can know its full meaning. ⑤ For example, Betty may not know her own mind, and perhaps God could not either, because she is not single-minded when it comes to Albert, his love and his stuff.

\*indeterminacies : 불확정성

정답 및 해설 301-302쪽

---

# E SOLU TION

빈칸추론 & 간접쓰기를  
평가원의 CODE로 해결하는  
영어영역 고난도 유형 대비서

**정답 및 해설**

---



# 1-1 기출 문제 정답

1	②	2	①	3	③	4	①	5	③	6	③	7	①	8	①
9	④	10	③	11	②	12	④	13	②	14	②				

## 1

**해석** 이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불편하게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만족을 기대한다. 우리는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것을 원한다. 24시간 수리점과 연중무휴의 쇼핑이 있다. 만약 우리가 배고프다면, 전자레인지 저녁식사부터 심야 영업을 하는 식료품점과 식당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이 항상 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방법 혹은 심지어 기다림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인내**는 분명히 중요한 미덕이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라는 생각을 하며 전자레인지 앞에서 있다.

- ① 야망
- ② 인내
- ③ 정직
- ④ 겸손
- ⑤ 근면

**해설** 빈칸에 들어갈 근거를 찾기 쉬운 문제입니다. 지문 내용은 우리에게 편리한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대용어로는 빈칸 앞의 It is nice to have what you want when you want it, but the ability to delay satisfaction is important.의 ‘delay satisfaction’이 됩니다. 지문 내에서 전체적으로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을 이해하고 푸는 것도 됩니다. 따라서 빈칸 안에는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은 2번. 인내입니다.

## 어휘

discomfort-불편. 불쾌 immediate-즉각적인 delay-미루다 virtue-미덕

## 29

**해석** 철학자들은 기쁨이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강박적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때로 주장하였다. 아마도, 기쁨이나 행복은 특정 활동에 몰입하게 됨으로서 나오는 부산물로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 사실은 쾌락주의의 모순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모순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심리이론으로서의 쾌락주의에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생각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유일한 생각인 사람이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활동을 고르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만 생각하는 증권 중개인과 같다. 결과물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위 비판에 대한 자명한 대답은 쾌락주의에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한가지에만 몰두하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쾌락주의자들은 기쁨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데 가장 알맞은 활동을 반영할 것이고,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다.

**해설** 위 글은 쾌락주의에는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은 쾌락주의자들이 쾌락을 추구함으로 그들의 일을 쾌락에 따라 추구하는데, 그 수단을 고를 수 없어 쾌락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 지적에 대한 쾌락주의의 대답이 쾌락주의자들의 이론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거지, 쾌락주의자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This fact가 1번 선택지 앞에 있는 내용(쾌락은 부산물)을 받고, 1번 선택지 뒤의 this idea가 주어진 문장에서 말하는 모순에 관한 내용을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1번 전후로 문장 연결이 '쾌락은 부산물이다 →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순접), 쾌락을 얻기 위한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글이 연결되어 모순을 지니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 어휘

supposedly-아마도 means to an end-목적 달하기 위한 수단 paradox-모순 stockbroker-증권 중개인  
Unto Others: The Evolution and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Elliott Sober, David Sloan Wilson

## 30

**해석** 편향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도구와 방법들이 윤리적 제약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여길 때 일어난다. 때때로 이 편향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를 오염시키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편견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모두 USA Exxon Company에 고용된 25명의 다른 과학자들은 1993년 4월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회의에서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알래스카의 해안 이름)은 1989년 Exxon Valdez 원유 유출로부터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주장했다. 회의의 다른 과학자들은 Exxon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원유 오염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과학자들에 의하면 Exxon의 과학자들은 실제로 Exxon 유출로부터 온 원유의 일부를 다른 유출원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또한 Exxon 연구자들이 그들의 편향된 결론과 대립하는, 더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진 관찰과 더 큰 표본 크기에 기반한 발견들을 무시한 것을 고발하였다.

**해설** 5번 선택지 뒤 They가 5번 선택지 앞의 Other scientist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번 다른 선택지가 정답이 되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5번 선택지 앞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주어진 문장의 other scientists로 5번 선택지 뒤 They가 가리킬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4번 선택지에 들어갈 경우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4번 선택지 앞의 'Exxon Valdez의 원유 유출로부터 거의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근거가 되어야하는데 주어진 문장은 4번 선택지 뒤 다른 과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 어휘

ascrib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prejudice-편견 infect-오염시키다 accuse-고발하다

Religion and Science-Bertrand Russell

### PLUS

주어진 문장은 원래 Exxon researchers(S) likely ascribed(V) a portion of the oil that actually came from the Exxon Valdez spill(O) to other sources(C), according to other scientists(A). 이나 밑줄 친 목적어 부분의 어순변화로 to other sources 뒤로 이동한 것입니다.

Ethics of Scientific Research-Dr. Kristin Shrader-Frechette